인류가 널리 사용한 금속

철을 통해 역사 재조명

쇠말(왼쪽)과 철제은입사 촛대(오른쪽).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쇠 · 철 · 강, 철의 문화사'

철의 다양한 모습
권력 · 삶 주제로 풀어내
전시는 내년 2월 18일까지

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장 널리 사용한 금속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철은 농기구로 만들어져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각종 도구로 활용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문명의 이기로서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순회전시 일환으로 '쇠·철·강, 철의 문화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류사에서 철이 지닌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고, 철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재조명한다.

특히 철의 다양한 모습을 '권력'과 '삶'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전시에선 철이 권력의 상징으로서 등장한 후, 점점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크게 '철·인류와 만나다' '철·권력을 낳다' '철·삶속으로 들어오다'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철 문화 코너를 마련하여 철기문화가 시작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성장했던 마한세력의 철제기술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철이 대중의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쇠솥과 같은 주방용기, 생활 용구, 건축 자재, 철마, 철화자기 그리고 신앙·기원의 대상이나 예술품까지 철을 이용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흔적을 살필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오늘날 금속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현대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문명의 미래를 그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내년 2월 18일까지.

/정해은 기자

서해안 금강권 역사 · 해양 관광 광역화 추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서천국립해양생물지원협약과 협약 체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서천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뛰어난 관광잠재력을 지닌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최고 해양생물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이번 만남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해양생물자원을 연구하는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해 중부지역 역사·해양생태문화 거점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해양생태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30~50%)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제반 마케팅 활동 ▲공동 마케팅을 위한 시설 및 홈페이지 활용 등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일부터 각 기관의 상호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의 입장권을 소지하고 상호 기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은 30~5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향후 동백대교의 개통을 앞두고, 핵심관광지인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은 충남과 전북의 종합적 관광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훈장골 인성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는 '제1회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중·고등학생(40명)과 학부모(20명), 그리고 한문고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20명)이다.

강의별 교육은, 중학생반과 고등학생 반은 '알고 쓰는 한자어' '재미난 고사성어' '삶이 되는 고전명구'를, 학부모와 일반인은 '보고 듣고 맛보고-논어의 세계' '한문을 읽는 법' '네 글자로 여는 인문학' '한시와 그림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강의는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10시~12시)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은 3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2월 넷째 주 상영작 공개

'두 개의 사랑' · '고스트 스토리' 등 2편 개봉

'고스트 스토리' 스틸 컷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12월 넷째 주 작으로 프랑수아 오종의 신작 '두 개의 사랑'과 사랑과 상실에 대한 '고스트 스토리'가 개봉·상영한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하는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신작 '두 개의 사랑'은 형제를 오가며 사랑을 나누는 여자 클로에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담아낸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소설 '쌍둥이의 삶'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탄탄한 스토리와 감독 특유의 세련된 연출력이 더해져 호평을 얻었다. 또한 '영 앤 뷰티풀'로 감독과 호흡을 맞춘 마린 백트와 젠틀함과 야성미 넘치는 성격의 쌍둥이 형제를 연기한 제레미 레니에의 섹시 케미스트리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고스트 스토리'는 유령이 되어 연인 M의 곁을 떠도는 C의 이야기로, 사랑을 잃은 이들에게 찾아 온 애틋하고 미스터리한 시간을 그린다.

작품은 많은 영화를 통해 활용된 유령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이 서려있는 비주얼로 유령을 그려내며 독창성 있는 연출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또한 1.33:1의 화면비로 영화의 고전적인 영상미를 더했으며, 프레임의 모서리를 원형으로 부드럽게 처리해 빈티지한 분위기의 영상미를 연출한다.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케이시 애플렉과 '캐롤'의 루니 마라가 호흡을 맞췄으며, 제34회 선댄스영화제를 통해 공개된 이후 끊임없는 호평을 얻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인간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사육된다'

이올 개인전 '먹이를 함부로 주지 마시오'

'인간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사육된다'고 말하는 이올 작가. 그는 교동 ART-STUDI에서 열리고 있는 '먹이를 함부로 주지 마시오' 전에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철저하게 프로그래밍 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회화·설치·영상 등 총 13점의 작품을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풀어낸다.

철장을 설치한 전시장 입구는 마치 동물을 사육하는 우리에 들어서는 느낌을 자아낸다. 그곳에는 '먹이를 함부로 주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다.

전시장 중앙, 붉은빛이 새어 나오는 냉장고의 냉장실 안에는 수십 개의 유아용 우윳병이 진열되어 있다. 냉동실에는 채집한 잡초를 투명 아크릴릭 상자에 넣어서 사육하고 작은 팬을 설치했다. 잡초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캠코더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벽면에 투영한다.

벽면에 걸린 회화는 어릴 적 돌사진을 자유로운 필법과 드리핑 기법을 혼용, 농후한 회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100호 3개를 병렬한 전면의 대작 '유행에 민감한 남자들'은 자주색 스냅백을 쓴 몰개성적인 군상의 뒷모습과 침묵의 나선형이 긴장하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보기에도 끔찍한 외모와 두 눈을 부릅뜨고 오로지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광인의 모습을 그린 고야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를 변용, 자기 이름인 '이올'과 '오리'로 치환한 '오리를 삼키는 사투르누스'는 사육에 대한 직설적 경고를 던진다.

전시는 내년 1월 7일까지.

/정해은 기자